

##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 촉진

### 빈병 보증금제 공익목적 사용을 위한 제반산업 수행



윤 종 응

(사)한국음기순환협회 회장

환경부는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고자 1985년부터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빈용기 보증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빈병 보증금제는 주류나 음료 판매가격에 공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반환 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미반환된 보증금은 76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2005년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의 개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온 빈용기 미반환 보증금의 사용용도를 빈용기 회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빈용기 보관 및 수집소 설치·지원, 연구·개발,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등으로 지정했다.

이에 주류업계에서는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의 공익목적 사용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올해 3월 (주)진로를 회장사로 (주)두산, (주)선양, 하이트맥주(주), 오비맥주(주) 등 5개사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게 된다.

출범 초기 제도운영 및 빈용기 미반환 보증금 사용용도에 대한 주류 회사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준비위원회는 다방면으로 별도법인 설립에 대한 타당성과 각 회원사와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많은 면담과 설득을 통해 협회 설립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주류업계 회원사와 환경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지난 4개월동안 협회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시작하여 마

참내 (사)한국용기순환협회는 창립하게 된다.

(사)한국용기순환협회는 지난 7월 6일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같은 달 23일 환경부에서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우리나라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선도할 전문기관으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다.

(사)한국용기순환협회는 윤종용 초대 회장(현 (주)진로 대표이사)을 주축으로 15명의 직원이 3개 팀(관리, 사업, 기획홍보)으로 구성되어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 회원사로는 진로, 두산, 금복주, 대선주조, 무학, 보해양조, 선양, 충북소주, 한라산, 하이트주조, 하이트맥주, 오비맥주 등 12개사이다.

윤 회장은 “협회는 소비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의 공익목적 사용을 위해 이에 적합하고 타당한 제반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회원사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 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여 회원사간의 권익증진을 최우선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협회는 △ 빈용기의 회수, 재사용 촉진을 위한 각종 제도의 운영 △ 빈용기 회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역별 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 빈용기의 효율적인 회수, 재사용 방안의 연구, 개발 △ 빈용기의 회수율 제고 및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교육 △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에 관한 각종 조사 및 지원 △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임, 위탁 받은 사업수행 △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관련단체와의 상호연대 및 지원사업 △ 회원사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협회는 빈용기 회수 및 재사용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회수센터) 및 조사, 연구사업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활동을 통하여 환경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빈용기 재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 회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지구촌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보전 활동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어, 그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우리나라도 폐기물 발생량을 적극적으로 억제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빈용기 재사용을 확대하는 자원순환정책이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환경정책 일환으로 설립된 (사)한국용기순환협회는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의 공익목적 사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가치 있는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동시에 회원사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원을 절약함으로써 환경 지킴이로 국가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사)한국용기순환협회. 앞으로 환경단체로서 위상을 떨칠 (사)한국용기순환협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

이한열 기자